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넘버즈에서는 ‘개신교인/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생활, 교회 인식’ 등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네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 이후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설교 인식 및 평가, 목회 방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비율’을 보면 담임목사 4명 중 1명 (24%)만이 현재 설교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 전인 2012년 55%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목회 코칭’(70%)이나 ‘목회 컨설팅’(67%)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 10명 중 7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210호>를 통해 목회자의 목회 환경과 인식, 필요와 고민을 참고하여 개교회의 목회 방향성 이해와 수립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교회(개신교) 담임 목사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802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 및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DB를 활용, 목회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진행함)
표본 추출 방법	전국 교회의 교회규모별 비례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 기간	2023년 01월 31일 ~ 02월 12일 (13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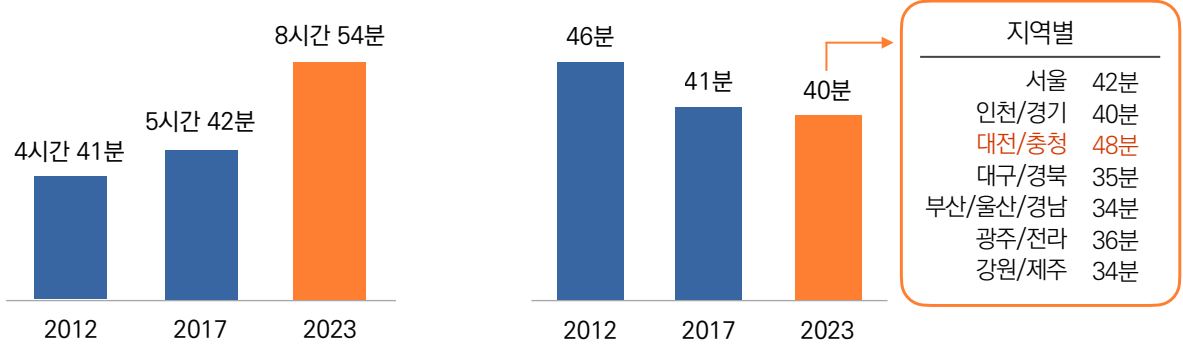
[설교 실태와 인식]

주일 설교 준비 시간, 10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 ▶ 담임목사들의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한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조사결과 평균 8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4시간 41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설교 준비를 위해 여러 자료 수집과 연구 등 설교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반면 평균 대예배 설교 시간은 40분으로 2012년 46분에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이 48분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 평균 준비 시간 (담임목사)

[그림] 주일 대예배 평균 설교 시간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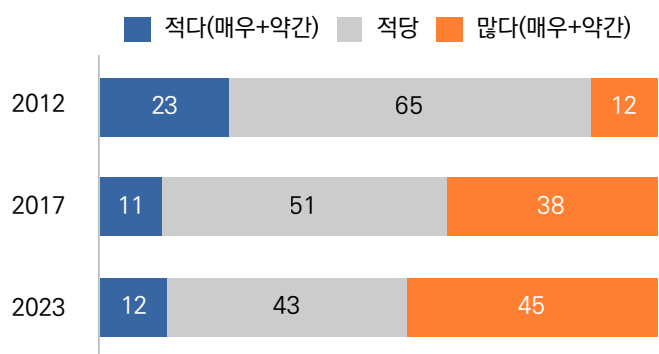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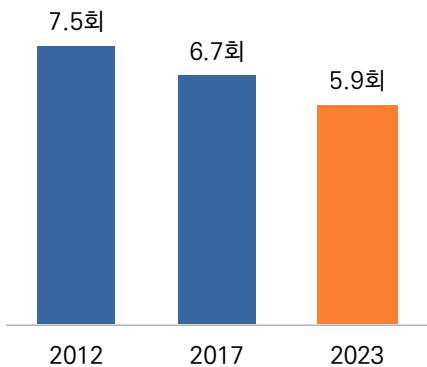


◎ 설교 횟수 줄고 있지만, '설교 횟수 많다' 인식은 증가!

- ▶ 담임목사들에게 지난 한 주간 평균 설교 횟수를 물은 결과, 평균 5.9회였는데, 이는 2012년 7.5회, 2017년 6.7회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 ▶ 이렇게 설교 횟수는 줄고 있지만, 설교 횟수가 많다고 생각(매우+약간)하는 목회자는 45%로 10년 전인 2012년 12%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설교 준비 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해 보면 설교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설교 1편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필요하기에 상대적으로 설교 횟수가 많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난 한 주간 평균 설교 횟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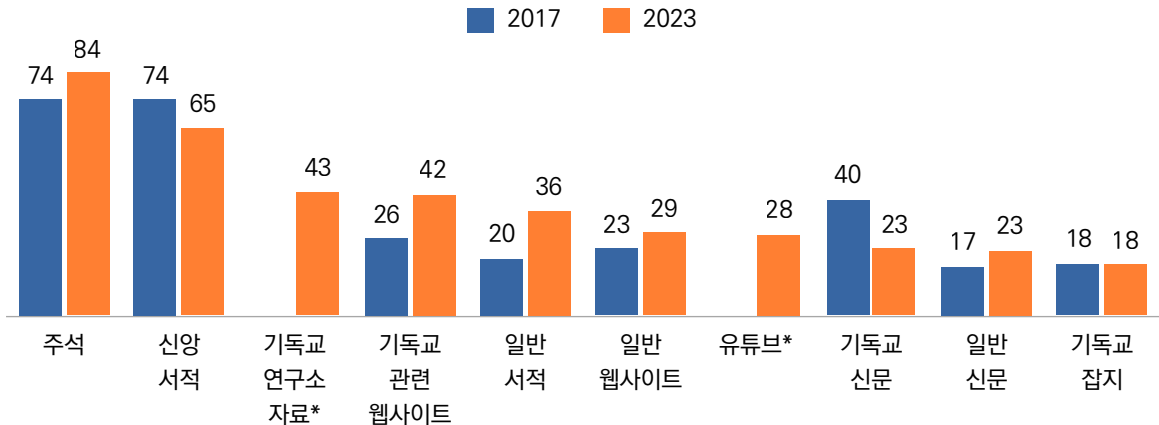
[그림] 설교 횟수에 대한 생각 (담임목사, %)



◎ 주일 설교 위해 일반 서적, 웹 사이트 이용률 크게 증가

- ▶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해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주석'이 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앙 서적' 65%, '기독교 연구소 자료' 43% 등의 순이었다.
- ▶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2023년에는 '신앙서적'과 '기독교 신문'을 참고하는 비율은 줄었고, 주석을 기본으로 하되 기독교 자료/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일반서적, 유튜브, 일반신문 등의 자료 참조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인문학적 주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해 참고한 자료 (담임목사, 지난 주일 기준,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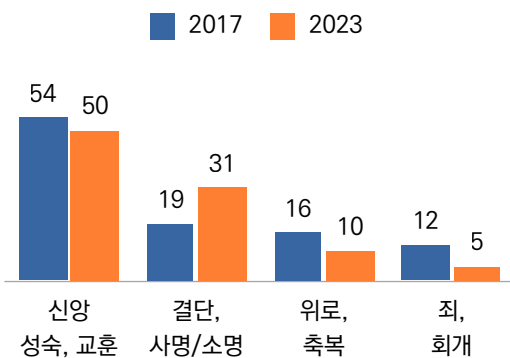


*2023년 조사항목 신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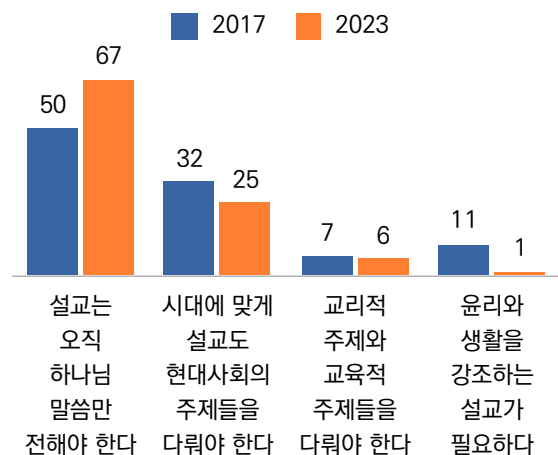
◎ 설교 주제,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져

- ▶ 주일 대예배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신앙 성숙, 교훈'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단, 사명/소명' 31%, '위로, 축복' 10% 등의 순이었다. 2017년 대비 '결단, 사명/소명' 응답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 이번에는 설교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담임목사 3명 중 2명(67%)은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를 꼽아 가장 높았는데, 해당 의견에 대한 인식은 2017년 조사 대비 높아지고 있었다. 반면 '시대에 맞게 현대사회의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은 2023년 25%로 2017년 32%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 내용 (담임목사, 지난 주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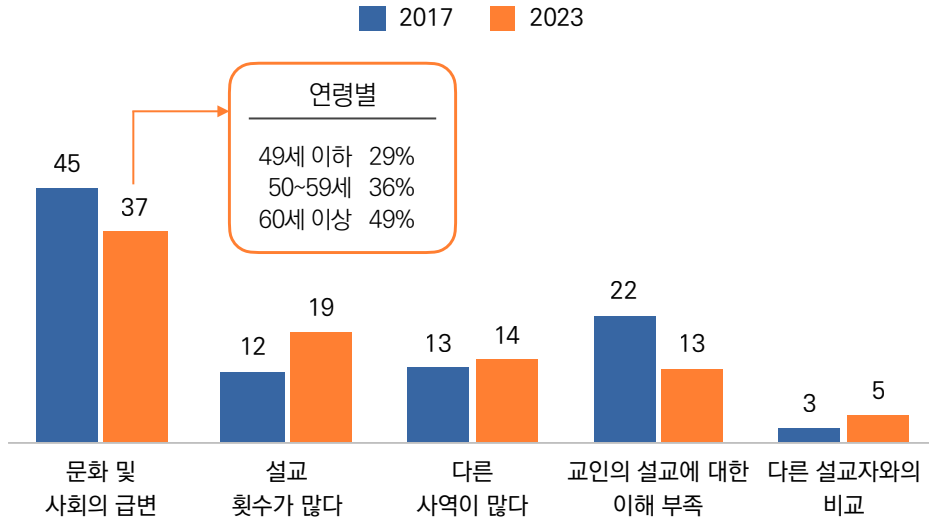
[그림] 설교 주제에 관한 의견 (담임목사, %)



◎ 설교 사역의 어려운 점, ‘급변하는 사회 문화’!

- ▶ 설교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문화 및 사회의 급변’을 꼽은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교 횟수가 많다’ 19%, ‘다른 사역이 많다’ 14% 등의 순이었다.
- ▶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 및 사회의 급변’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담임목사의 경우 설교 사역에서 ‘문화 및 사회의 급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그림] 설교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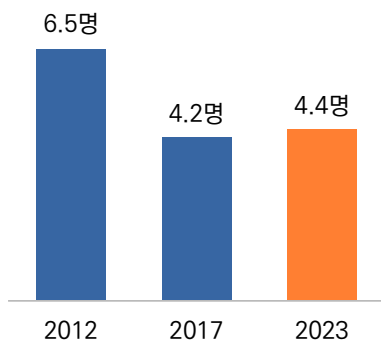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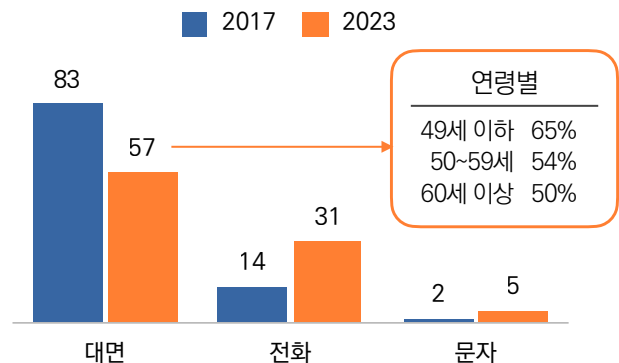
[목회 활동 및 인식] 대면 상담(심방) 줄고, 전화 상담(심방) 증가 추세!

- ▶ 지난 한 주간의 목회상담(심방)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명으로 나타났다. 월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토, 일을 제외한다면 화~금 기준 하루 1명 남짓 교인과의 상담 또는 심방을 하는 셈이다.
- ▶ 목회상담(심방) 방식으로는 2017년은 대면 방식이 83%로 주를 이루었으나 2023년 57%로 낮아진 반면, ‘전화 심방’이 31%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목회자일수록 ‘대면 상담(심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목회상담(심방) 평균 횟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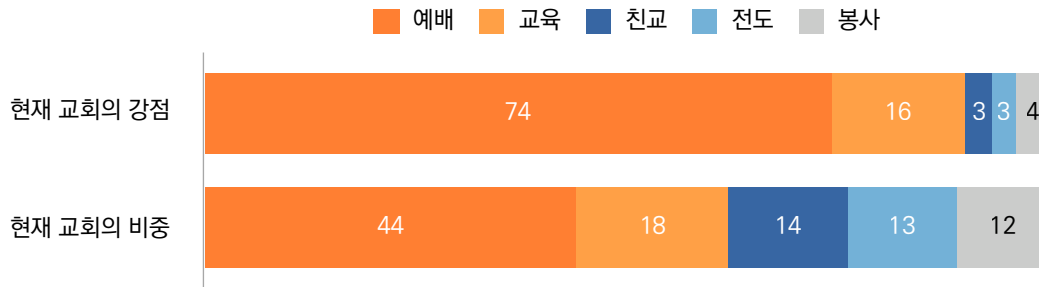
[그림] 목회상담(심방) 방식 (담임목사, 상위 3위, %)



◎ 현재 목회 집중 분야, '예배' 다음으로 '교육'!

- ▶ 목회의 주요 다섯 가지 분야(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를 제시하고 이 중 시무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예배'를 꼽은 비율이 목회자 4명 중 3명꼴(74%)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6%로 뒤를 이었다.
- ▶ 현재 교회의 다섯 가지 목회 분야별 비중은 어떠할까? '예배'의 비중이 44%로 '목회 분야별 강점'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 18%, '친교' 14% 등의 순이었다. 개교회의 목회가 예배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목회 분야별 강점/비중 (담임목사, %)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50대 이하 목회자, 60대보다 목회 활동력 높아!

- ▶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의 회복도로 목회 활동력을 파악해보았다. '성경공부', '구제/봉사', '소그룹 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에서 평균 50~60%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목회 활동력이 높았다. 즉 '4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평균보다 10% 이상 사역 활동의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교인 증가 예상하는 비율도 76%로 타 연령대보다 높았다.

[표]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정도 (담임목사, 코로나 이전 활동 상태를 100으로 가정한 현재 상태)

구분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회복율					전년 대비 예산 증가한 비율	향후 교인 증가 예상*
	제자훈련, 성경공부	지역사회 구제/봉사	소그룹 활동	전도/ 선교	새신자 등록		
전체	61	60	59	56	50	38	71
연령	49세 이하	71 ↑	66 ↑	67 ↑	63 ↑	66 ↑	76 ↑
	50~59세	59	58	57	54	47	71
	60세 이상	52	55	56	52	36	66

*시무 교회의 향후 출석교인 증가 예상을 물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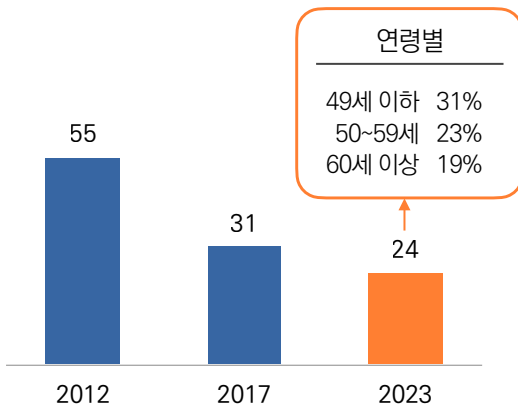
03

[목회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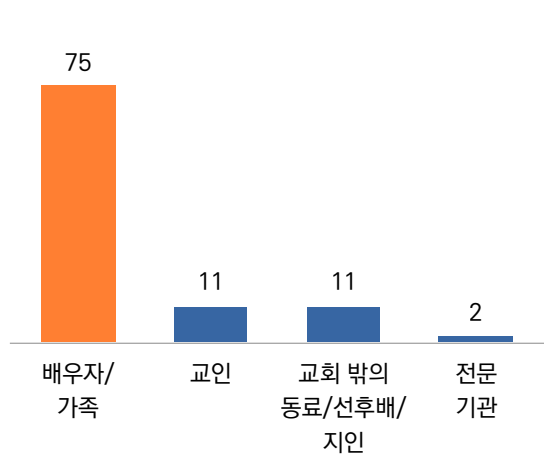
설교 피드백, 2012년 55% → 2023년 24%로 크게 낮아져!

- ▶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12년 목회자 중 55%가 '정기적 설교 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나, 2023년 24%로 10년 사이 설교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현재 설교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 ▶ 설교 피드백은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75%로 압도적이었고, 그 외에 '교인' 11%, '교회 밖의 지인' 11% 등으로 응답했다.
- ▶ 젊은 목회자일수록 설교 피드백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정기적 설교 평가(피드백) 받는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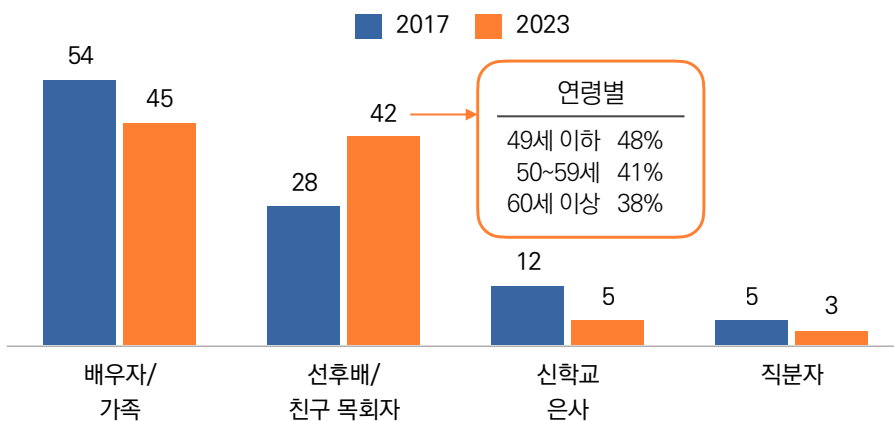
[그림] 설교 평가(피드백) 받는 대상 (정기적 설교 평가 받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 영적 도움 주는 사람, '배우자/가족' 줄고, '선후배/친구 목회자' 늘어!

- ▶ 목회자에게 가장 많은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가족'(45%)과 '선후배/친구 목회자'(4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배우자/가족을 꼽은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선후배/친구 목회자'에게 영적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p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 ▶ '선후배/친구 목회자'에게 영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젊은 목회자의 경우 '선후배/친구 목회자' 간 영적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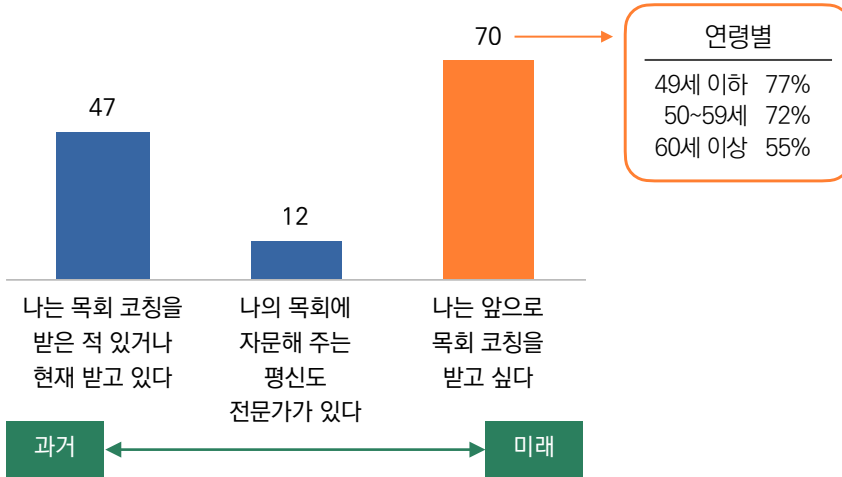
[그림] 영적 도움 주는 사람 (담임목사, %)



◎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 ▶ 이번에는 목회 코칭/자문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목회 코칭 경험률’은 전체 담임목회자의 절반가량(47%) 이었고, ‘목회에 자문해 주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으로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에 담임목사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해 ‘목회 코칭’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엿볼 수 있었다.
- ▶ 연령별로 보면 젊은 목회자일수록 ‘목회 코칭 의향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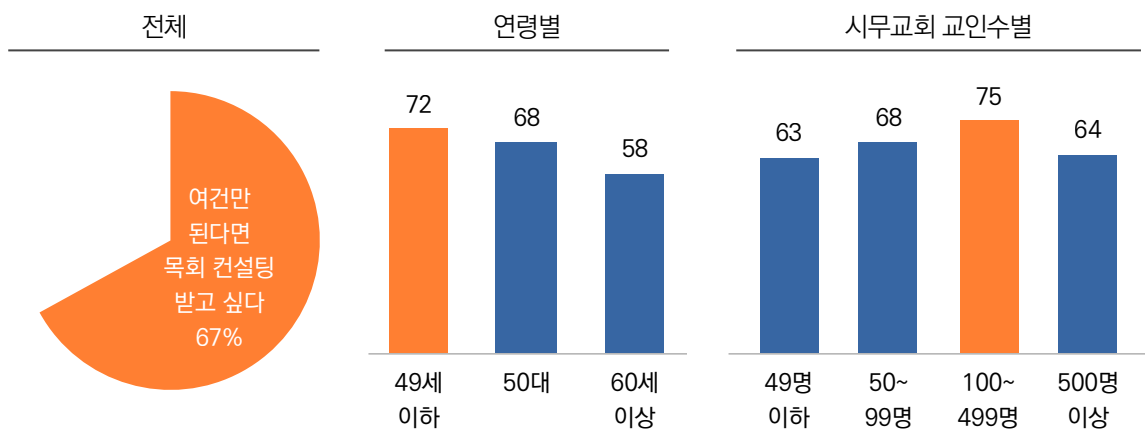
[그림] 목회 코칭 및 목회 계획 (담임목사, ‘그렇다’ 비율, %)



◎ ‘목회 컨설팅 받고 싶다’, 67%!

- ▶ ‘여건만 된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묻는 질문에 전체 담임목사의 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젊은 목회자 일수록 목회 컨설팅 받고 싶은 비율이 높았고,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인수 100~499명의 중형급 교회 담임목사가 75%로 가장 높았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목회 컨설팅’ 받고 싶은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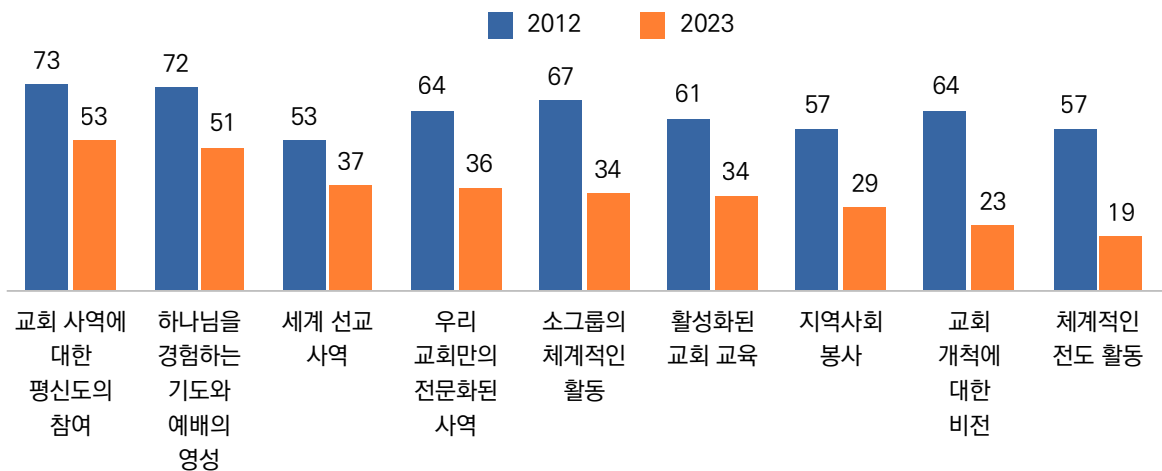
04

[시무교회 평가]

담임목사의 시무교회 만족도, 10년 전 대비 떨어져!

- ▶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척도)를 살펴보았다. ‘교회 사역에 대한 일반 성도의 참여’(53%)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와 예배의 영성’(51%)만이 50% 이상 만족도를 보였으며, ‘체계적인 전도 활동’(19%)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전도 활동이 약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 2012년 조사 대비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그 차이가 41%p에 달했다.

[그림] 시무교회 항목별 만족도 (담임목사,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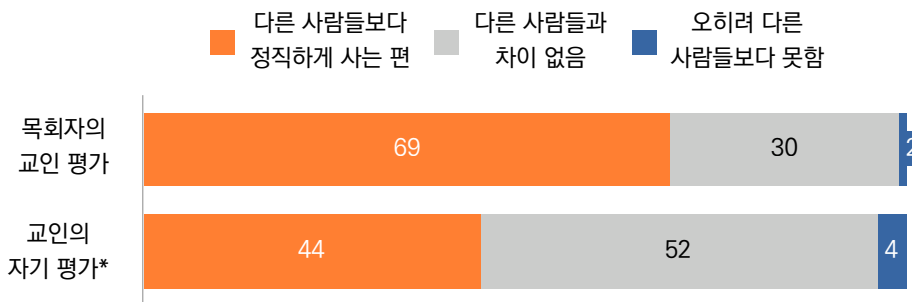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목회자의 교인 평가, 교인 스스로 평가보다 더 관대, 긍정적

- ▶ 목회자는 시무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무교회의 교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목회자가 10명 중 7명(69%) 정도로 나타났다.
- ▶ 이는 ‘교인 스스로 평가하는 정직성’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사는 편’이라는 응답에 대해 목회자는 자신의 교인에 대해 69%가, 교인 스스로는 44%가 응답해, 목회자의 교인 평가가 교인 스스로가 평가한 것보다 관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림] 교인 정직성 평가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p.261.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교회 담임목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 돌봄, 교회 행사 기획 및 추진, 교회 행정 등 목사에게 부여된 임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상당히 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담임목사의 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설교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해야 할 설교가 너무 많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담임목사는 일주일 동안에 평균 5.9회 설교를 한다. 비록 2012년의 7.5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1회 정도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설교가 성도들이 놓인 상황(CONTEXT)을 파악해서 성경(TEXT)을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상황에 적용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설교는 폭넓은 독서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 깊은 성경 해석 능력과 영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매일 평균 1회의 설교를 해야 한다면 숙성된 설교는 나오기 어렵다. 더욱이 설교 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문화 및 사회의 급변'(37%)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적 전환기라는 시대 상황이 설교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일 낮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2012년의 4시간 41분에서 2023년에 8시간 54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설교 준비 시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결과이다. 주일 낮 예배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2017년에 비해 신앙 서적과 기독교 신문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주석, 기독교 연구소 자료, 기독교 및 일반 사회 웹사이트, 유튜브 등 2017년보다 자료 소스가 훨씬 다양해졌는데 이는 설교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기독교 연구소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서적과 일반 웹사이트, 일반 신문 활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현실 지향적 설교를 고민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처럼 설교 시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경로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된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담임목사는 설교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교인이 감소하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욕구와 목회 환경이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어서 목회자들은 현실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고, 변화된 현실에 부합한 목회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 코칭/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담임목사들은 '앞으로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에 대해서는 70%가, '여건만 된다면 목회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목회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와 목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슬기로운 인적 네트워킹'이다. 요즘 JTBC 방송에서 인기 프로그램인 '최강야구'를 보면 김성근 감독이 베테랑 야구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투구 자세나 타격 자세를 끊임없이 지적한다.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목회자에게도 이런 어드바이저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 짓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더 발전된 설교와 목회를 할 수 있다.

둘째로 '슬기로운 정보 큐레이팅'이 필요하다. 지식의 발전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무엇을 아는가(KNOW WHAT)'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KNOW WHERE)'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외워야 했지만, 지금은 전화번호가 스마트폰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유형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정보 파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해서 좀 더 중요한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넘버즈'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팅 서비스이다)

현대는 목회자 단독의 능력으로는 목회하기 쉽지 않은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정보를 엮는 것(인적 네트워킹, 정보 큐레이팅)은 개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에 목회자들이 실천으로 옮길 것을 제언 드린다.